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04. 01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佛 금융정보국, “테러·아동포르노 자금조달에 암호화폐 이용”
  - 프랑스 금융정보국 「기욤」 국장은 시리아·이라크의 테러 자금과 동남아 아동포르노 자금조달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며 온라인 소액 결제서비스 사용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
- 英領 북아일랜드, 테러 경보 수준 ‘한 단계(심각→상당)’ 하향
  - 3.23 「브랜든 루이스」 북아일랜드 국무장관은 보안정보부(MI5) 자료를 인용, 2010년 이후 전반적인 테러 위협이 감소함에 따라 12년만에 테러 경보 수준을 ‘심각’에서 ‘상당’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였다고 발표
  - \* 英 테러 경보 체계: 위급(critical)⇒심각(severe)⇒상당(substantial)⇒보통(moderate)⇒낮음(low)

#### 미주

- 美, 이란 핵협상 타결해도 혁명수비대 제재 유지
  - 3.27 「로버트 말리」 미국 對이란 특사는 카타르에서 열린 ‘도하 국제포럼’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미국법에 따라 이란 혁명수비대에 대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
  - \* 한편, 「카말 하라지」 이란 최고지도자실 고문은 “혁명수비대는 이란의 정부군 이므로, 미국이 외국 테러조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필수적”이라고 언급
- 加, “코로나19 이후 비자발적 독신자 폭력 가능성” 주장 양분
  - 캐나다 대테러 전문가들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“코로나 19 제한 해제 時 ‘비자발적 독신자(Incel\*)’의 폭력위협 가능성이 고조 될 것이다”는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
  - \* ‘비자발적인’(Involuntary)과 ‘독신·성관계를 하지 않는’(celibate) 두 단어의 합성어로, 여성과 성관계를 갖지 못해 여성 혐오 성향을 지닌 남성들을 지칭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中 외교부장, 탈레반 집권 후 첫 아프간 방문

- 3.24 외신은 「왕이」 중국 외교부장이 탈레반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프간을 방문했으며, △ 신장위구르족 분리주의 움직임 견제 △ 아프간 광물 개발 등을 이유로 양국이 관계 강화 중이라고 보도
- \* 同人是 이슬람협력기구(OIC)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파키스탄 방문 후 전격적으로 아프간 도착

## 중 동

### ○ 예멘 후티반군, 사우디 석유 정유시설 겨냥 드론 공격

- 3.26 사우디 국영 매체는 예멘 후티반군이 지난 25일 사우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드론 및 로켓 공격을 자행,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석유 저장시설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도
- \* 후티반군은 지난 20일에도 사우디 내 정유 및 에너지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공격 자행

### ○ 이스라엘 · 아랍 4개국, '이란 대응' 회담 실시

- 3.27 이스라엘은 UAE · 바레인 · 모로코 · 이집트 등 아랍권 4개국 외무장관과 美 국무장관을 초청, △ 이란 및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세력 위협 △ 핵합의 복원 시 대응 등 지역 안보구조 논의
- \* 그동안 이스라엘을 고립시켜왔던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초청에 응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내 세력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

## 아프리카

### ○ 소말리아, '알 샤바브(Al-Shabab)' 소속 테러조직원 12명 사살

- 3.27 소말리아 정부군은 지난 23일 발생한 '모가디슈 테러사건'\*에 대한 대응으로 북부 아프우르르 지역에서 대규모 대테러작전을 전개하여 '알 샤바브' 조직원 12명을 사살하였다고 발표
- \* 3.23 '알 샤바브'는 수도 모가디슈에서 테러를 자행, 150명 이상의 사상자 초래

인도네시아, 술라웨시섬 성당 자살폭탄테러

- '21.3.28, 오전 10:30경 印尼 동부 술라웨시섬 마카사르市에서 테러범 2명이 오토바이에 압력밥솥형 사제폭발물을 싣고 성당 진입을 시도 중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현장 자폭, 20여명 부상
  - \* 이번 사건 배후를 자처하는 세력은 미등장
- 경찰은 금번 사건의 주체를 ISIS 추종단체 '자마 안샤루트 다올라 (JAD)'로 추정하며, '테러범들은 결혼 6개월차 부부로 이 중 1명은 2년 전 필리핀 카멜 대성당 자폭테러\* 연계자'라고 수사 결과 발표
  - \* '19.1 JAD 조직원 2명(부부)이 필리핀 테러단체 '아부사야프 그룹(ASG)'의 지원 하에 술루섬 소재 카멜 대성당 대상 자살폭탄테러 자행(사망 20·부상 111)
- 이런 가운데, 전문가들은 금번 JAD의 성당 테러 목적과 관련해,
  - 주요 테러 전술인 일가족 자폭테러를 통해 당국의 지속적인 대테러 작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조직이 건재함을 과시하는 한편,
  - 부활절(4.17) 도래 계기, 다수 신자가 성당을 방문 중인 상황에서 공격을 자행해 對기독교 투쟁 홍보 극대화를 노린 것이라고 분석
- 한편, 「조코 위도도」 印尼 대통령은 이날 공격을 '테러'로 규정하며, 경찰청장에게 '끝까지 범행 주체를 추적해 철저히 조사할 것'을 지시

< 아만 압두라흐만(Aman Abdurrahman) >

- 印尼 자바섬 출신('72.1生)으로 이슬람대학교(LIPIA)에서 이슬람 율법 전공 후 교사로 활동하였으며 '15년 인니內 ISIS 지지 群小단체를 결집하여 JAD를 결성
- '18.6 법원은 폭탄제조·테러활동 및 테러캠프 설립 등 혐의로 체포되어('10.3) 수감 중이던 同人에게 '18.5 수라바야 연쇄 자폭테러 지시 혐의를 추가하여 사형을 선고 (현재 복역 중, '17.1 美 국무부에 의해 국제테러분자로 지정)